광주시 동구 학동 조선대병원 내 전기·가스집중공급장치 콘센트에서 14일 오전 8시 10분께 화재가 발생해 이날 예정된 27건의 수술이 미뤄졌다. 〈광주동부소방 제공〉

화재 뇌관 멀티탭

- 아찔했던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
- 천장 설치 24구 멀티탭서 발화한 듯
- 광주·전남 화재 24%가 전기적 요인
- 부산 잇단 자매 참변도 멀티탭 지목
- 단순 점검 아닌 항구적 대응책 마련을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전기 공급 장치인 일종의 '멀티탭'이 지목되면서 멀티탭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광주동부소방 및 조선대학교 병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조선대병원 신관 3층 7번수술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수술실 내 천장에 설치된 '전기·가스집중공급장치' 콘센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장치는 수술실 내 각종 전기 의료기기와 마취 장비, 생체 모니터 등을 연결하기 위해 설계된 다중 전력 공급장치로, 전기 플러그 소켓이 통합돼있는 구조다.

화재가 발생한 조선대병원 수술실 내 공급장치는 중앙에서 고전압 전류를 끌어와 여러 장치를 연결할 수 있게 콘센트를 만들어 두는 구조로 돼 있다. 1개 면에 110V 소켓 2구, 220V 소켓 4구 등 총 6구가 배치돼 있고, 이를 4면에 배치해 최대 24구까지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해당 장치가 일종의 대형 멀티 이동형 콘센트(멀티탭)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당국은 해당 전력공급장치에서 누전으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력 과부하, 전선 단락 등 요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전력공급장치 부품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것을 의뢰했다.

조선대병원뿐 아니라 사업소, 가정 등지에서 멀티탭으로 부터 시작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8살과 6살 어린 자매를 숨지게 했던 화재의 원인도 스탠드형 에어컨 등 전기 설비가 다량 꽂혀있던 멀티탭으로 지목됐다.

또 지난달 24일 새벽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자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도 거실 멀티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멀티탭과 같은 전력공급장치 및 다중 접속기구의경우 소비전력이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연결하다 과열로 불이 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류가 과도하게 흘러 최대 허용 전력량을 초과하면 전선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지는 식이다.

지난해 7월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화재 3375건(광주 759건, 전남 2616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826건(광주 174건, 전남 652건)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다.

이 중 배선·배선기구로 인한 화재는 광주 57건, 전남 182건 등 239건에 달했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의 28.9%는 배선 및 배선기구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소방당국은 멀티탭 발화위험 화재 실증 실험을 치르기도 했다. 부산소방본부가 정격전류 10A(암페어) 규격의 멀티탭에 소비전력 2800W(와트) 에어컨을 연결해 13.4A 전류를 흐르게 하자, 19분만에 멀티탭 전선 온도는 70도까지 오르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멀티탭 전선을 모아놓고 그 아래에는 천 조각을 두고 같은 조건에서 다시 실험하자 12분 만에 스파크가 튀면서 멀티탭 전선 온도가 180도에 도달하며 천 조각에 불이 붙는 점도 실험 결과 확인됐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전기적 요인을 둘러싼 화재는 재난안전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한다"며 " 연속성, 전문성, 진정성을 기반으로 단순 점검이 아니라 예방, 대응, 복구까지 항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양제철서 배관 철거작업 중 3명 추락

협력업체 직원 1명 심정지·2명 중상…경찰·고용부 경위 파악

광양제철소 내에서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광양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금속 입자 등에 열을 가해 고체로 가공하는 공정)공장 외벽에서 배관을 철거하던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추락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60대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이송됐으며, 60대와 30대 작업자 1명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들이 공장 외벽에서 고소작업차를 타고 12m 높이에서 대형 배관을 해체하던 중, 배관 일부가 붕괴하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37억원 가로챈 유령 법인 일당 중형 선고

허위 인터넷 기사·가짜 홈피 전화번호로 비상장주식 투자 유도

유령 법인, 허위 인터넷 기사, 가짜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을 동원해 50여명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해 37억원 거금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2억 5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비상장주식회사 내부자이자 공범인 C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자자 58명으로부터 총 37억 16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상장주식회사인 D사가 곧 상장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D사는 상장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D사와 이름이 똑같은 유령 법인을 만든 뒤, 허위 보도자료를 유포해 D사가 주식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 사건 주범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E씨는 "범죄 수익금 20억원을 나눠주겠다"며 D사 관계자인 C씨를 포섭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홈페이지에 적힌 D사 연락처를 유령 법인의 전화번호로 바꿔치기해 상장 여부를 묻는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리딩투자 사기로 단기간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고 있고, 범죄 수익을 세탁·은닉한 뒤 재판에서 범죄 수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연루자 오늘 소환

김건희 특검팀, 5명 조사 예정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 핵심 연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양평고속도로 사건에 대해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외 5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특검은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실과 대변인실, 감사실, 도로정책과, 한국도로공사 설계처를 비롯,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곧바로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영장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14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피의사실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엔 원 전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사실 중 업무상 배임 혐의도 포함된다고 특검은 밝혔다.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일대로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배후로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이 관여했는지가 이번 핵심인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두 사람을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원 전 장관과 김 의원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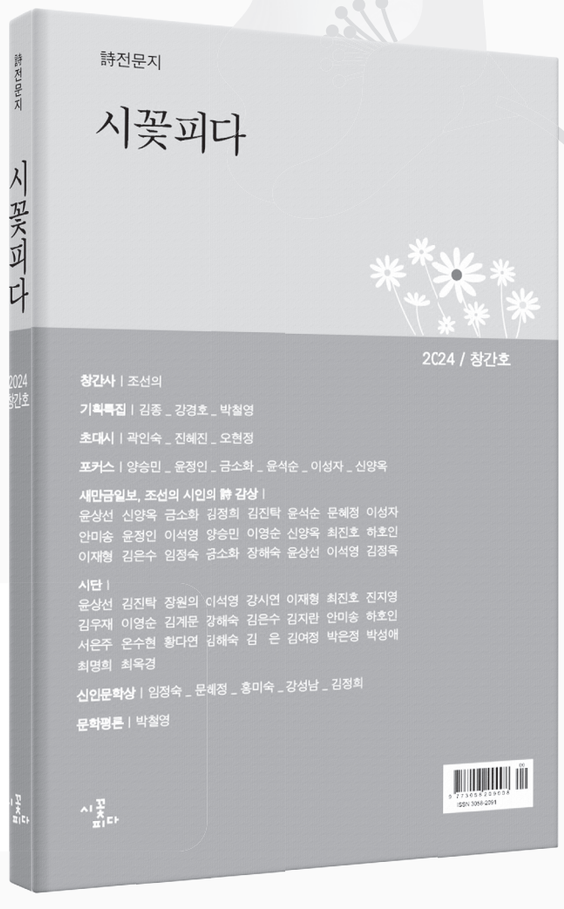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압수물 분석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